

해외 高의존품목의 공급망 취약지점 점검 및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

-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개 품목 점검,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 마련
- 차량용 요소 수입위한 장기계약시 단기차액의 50% 보조, 할당관세 연장 추진하고 근본적 수급 안정 위한 공공비축 대폭확대, 국내생산 지원 등 방안 내년 1분기까지 확정
- 9개 부처 84개 선도사업자 선정, '24년 상시 추가 선정
- 1조원 규모의 공급망분야 특화 사모펀드 조성, 내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원 추가 조성
-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 수립 통해 주요 품목의 비축규모와 방식 결정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.16(수) 14: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* 부총리(주재), 외교·국방·산업·과기·국토·환경·해수·행안·농림·복지·중기부·금융위, 국조실, 관세·조달·방사청, 식약처, 국가정보원, 국가안보실, 수은, 민간위원 참석

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「공급망안정화법」에 따라 설치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지난 6.2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.

금일 2차 회의에서는 ①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②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(안), ③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및 ④공공비축 현황과 '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(안) 등을 논의 하였습니다.

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중동 분쟁 격화,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, 美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,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 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리스크의 '사전 점검 → 조기경보 → 선제대응'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.

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 경제는 중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고 하면서, 날로 높아져가는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[붙임1] 경제부총리 모두발언
 [붙임2]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
 [붙임3]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

< 총 괄 >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공석	-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진	(044-215-7871)

< 안건별 담당자 >

[(안건1)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]

담당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장	공석	-
		담당자	사무관	김낙현	(044-215-7872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종주	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섭	(044-203-4913)

[(안건2)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방안(안)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분석팀	책임자	팀 장	손정혁	(044-215-7885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민	(044-215-7873)
	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종주	(044-203-49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섭	(044-203-4913)

[(안건3)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도익	(044-215-7880)
		담당자	사무관	고상덕	(044-215-7881)

[(안건4) 공공비축 현황 및 '25년 비축관련 정부 예산(안)]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	공석	-
		담당자	사무관	이경달	(044-215-7877)